지역 소식통

부안군, 유충구제 방역소독 실시

부안군은 방역소독 활동의 일환으로 정화조가 있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유충조사 및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이를 통해 하절기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부안군보건소는 관내 12개 읍면의 경로당 47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1차 유충구제를 실시했다.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를 구제하는 것이 여름철 모기 성충 500마리를 잡는 것 이상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빙기 유충 방제를 통해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기 전, 2차 유충구제를 통해 위도면을 포함한 13개 읍면 정화조가 있는 경로당에 방역약품 배부 및 투여하고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월동 모기의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를 공략해 효과적인 유충구제를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출산가정 방문 행복 꾸러미 전달 호응

고창군이 공음면 평촌마을의 한 출산가정을 찾아 건강한 출산과 생명 탄생을 축하하며 행복꾸러미를 지원했다.

군은 이날 임신출생 축하용품(50만원)과 산후조리비(200만원), 남편을 위한 육아가이드북, 수유패드, 보충영양제 등 행복꾸러미(10종)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50만원→200만원)를 확대 지원(전북 최대)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 많이 낳아 키우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 기념물 지정 · 승격

정읍시, '불우헌 정극인의 묘'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 전형… 문화적 경관 우수 인정

정읍시 향토 문화유산인 '불우헌 정극인의 묘'가 전라북도 기념물(제160호)로 지정·승격됐다.

불우헌 정극인(401~1481, 이하 정극인)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태인고현동 향약'의 창시자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다.

전라북도는 "정극인이 국문학적, 지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그의 묘는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제시설의 의장(意匠)과 공간구조의 완결성을 갖추는 등 문화적 경관이 우수하다"라며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불우헌 정극인 묘는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은석마을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묘 위쪽으로는 정극인의 부인 구고 임 씨의 묘가 있다. 묘는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등 사신사(四神沙) 자리 잡기와 배후 숲, 봉분(원형 봉토분), 석물 재실 등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완결형 시설 및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묘역에 설치된 석물은 묘표 3기, 망주석 1쌍,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1쌍, 장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극인은 1401년 경기도 광주 두모포에서 출생했다. 1429년 생원시에 급제해 성균관에서 수학 중 1437년 척불(斥佛) 상소로 인해 북방(北方)으로 귀양을 갔다가 곧 풀려 처가가 있는 태인(泰仁)으로 내려왔다.

서당을 세워 인근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1451년 6품의 광흥창부승(廣興倉副丞)에 올랐고, 1453년 문과에 급제했다.

1455년 전주 부교수로 있을 때 단종이 폐위됨에 따라 사임하고 태인으로 돌아왔다. 1469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임용되고 곧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는데 1470년 벼슬을 사양하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특히, 1475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주도의 태인고현동향약(泰仁古縣洞鄕約)을 제정해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힘썼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문화재단,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선정

국비 1억6000만원 확보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시행하는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델 구축, 컨설팅, 성과관리 연구 연계 등을 지원한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 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 1억 9천만원(국비 1억 6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주민 모두가 생활문화로 나와 모일 수 있는, 협력과 연대로 똘똘 뭉친 생활문화 거점 부안'을 주제로 '모여부안(모여봐), 나와부안(나와봐), 살아부안(살아봐), 놀아부안(놀아봐), 푸른부안(청자로)'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유휴공간과 일상공간(동네카페),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거점화하여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모여부안, 생활문화 박람회, 프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우선 나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나와부안, 마실 상권 생활체조캠페인, 경로당과 동호회 결연사업 등 부안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양성하는 살아부안, 지역 내 생활문화 시설을 연계,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놀아부안, 전통의 청자와 주민을 엮는 생활도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푸른부안 등이다.

특히 "협력과 연대"를 통한 생활문화 확산 사업인 만큼 지역공동체, 활동가, 주민 동아리, 생활문화동호회, 유관기관 등과 지역형 협의체를 구성하여 워크숍, 찾아가는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창군은 23일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특별히 김기섭 1일 명예 청년군수가 참여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약사업의 내실있고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민선8기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실현을 위해 6대분야 15대전략 80대 과제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한 '고창군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감염병 전담조직 강화', '쉽고 빠른 규제개혁 원스톱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

정상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콘도,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방과 후 돌봄시설 시스템 강화', '내·외국인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파크골프장 확충',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5개 사업이며, 공모기간 미도래로 인해 아직 미착수 사업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역시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23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 도시

정읍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정례브리핑

정읍시가 23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임웅빈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가 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현안,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임 직무대리는 7개 과·소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도시과 소관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계획을 소개한 뒤 도시안전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올 한 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과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레저활동,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또 지역활력과 추진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보행 공간 제공을 위해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지역 3개 지구에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과 추진사업으로 산내면 매죽리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 낙석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예·경보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과 추진사업으로 오랜 시민 숙원사업인 국도 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화장실 5개소를 설치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식목일 맞이 '녹색환경 조성' 나무 심기

정읍시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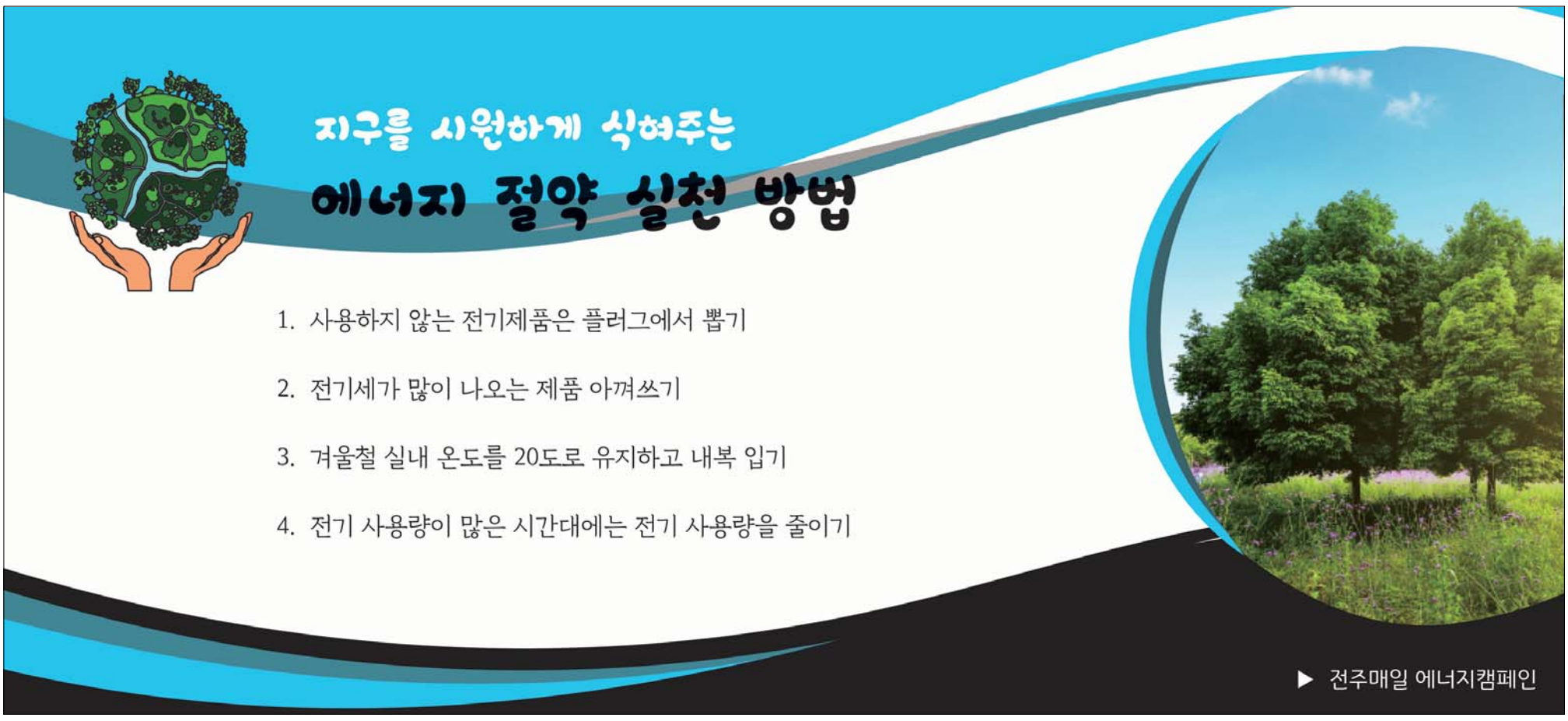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시는 23일 용산동 1071번지 내장산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나무 심기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묘목 구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과 관계기관, 시민단체, 임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과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 나무 심기에 동참하며 자연휴양림 조성지를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나무 심기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1ha 면적에 시목인 단풍나무 묘목 1천여 본을 심었다.

이와 함께, 나무 심기 장소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연환경 살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학수 시장은 "숲은 기후변화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초미세먼지도 흡수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